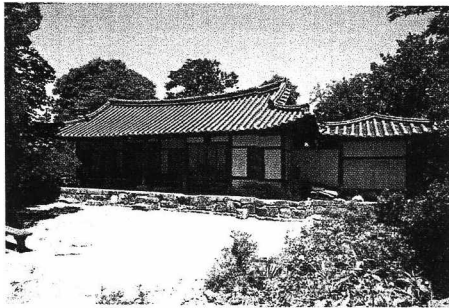


아산 외암마을 (牙山 外巖마을)



- 위 치 :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
- 시 대 : 조선시대
- 지정번호 : 중요민속자료 제236호

아산시 송악면 외암마을은 충청도에서 마을 단위로는 유일하게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마을이다. 소위 말하는 '민속마을' 인 것이다.

현재 마을에는 참판댁과 건재고택, 영암댁, 송화댁 등 양반 가옥과 50여 호의 초가 등 크고 작은 옛집들이 상당부분 원래의 모습을 유지한 채 남아 있다. 한 마을에 전통적인 수법의 상류가옥, 중류가옥, 그리고 서민가옥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, 외암마을은 마을의 형성이나 전통 가옥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.

조선 명종 때 이사종(李嗣宗)이 평택진씨 진한평(陳漢平)의 사위로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이래 예안이씨의 집성촌이 되었는데, 지금도 예안이씨 집안에서 진한평을 외손봉사하고 있다. 조선후기에는 이간(李柬, 1667~1727)이라는 대학자를 배출하면서 양반 마을로서의 전통을 유지하여 왔다.

마을 뒷산인 설화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을 마을 안의 개별 가옥까지 끌어들여서 정원을 조성하였는데, 이러한 구조는 외암마을만의 독특한 특징이다. 이 마을에서는 설화산에서 내려오는 냇물의 상류를 막아 물길을 돌려서 마을길을 따라 수로(水路)를 개설하였다. 그리고 그 물은 마을의 여러 양반 가옥들을 통과하면서 각 가정마다 특색있는 정원을 만드는 데 한 몫을 하였다. 예를 들어, 건재고택에서는 계곡 물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흐르도록 하면서 작은 폭포와 연못을 조성하였으며, 송화댁에서는 우거진 송림 사이로 물이 흐르게 하여 산속의 계곡과 같은 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.

또한 돌담으로 연결된 마을 안길과 주변의 울창한 수림이 마을의 경관을 더욱 고풍스럽게 하고 있다. 1999년부터는 매년 10월 외암마을 짚풀문화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체험들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.